



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사전준비를 거쳐 추경 통과 후 신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5.4.29. 한국일보는 「추경 1.5조 배정된 소상공인 크레딧, 올해 집행 가능할까?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정부가 ‘필수 추가경정예산’ 중 1조 5,0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을 추진 중이지만 시스템 구축 난항으로 연내 집행은 불투명하며, 효과는 내년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경감을 위해 공과금·보험료에 최대 5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 -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기존에 보유한 신용·체크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거나, 신규 신용·체크·선불카드를 발급받아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준비 중이며, 시스템 구축을 거쳐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.
 - 특히, 선불카드와 신용·체크카드를 구분하여 시스템 구축 기간이 비교적 짧은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, 6월 초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동 사업은 사후 증빙없이 카드에 크레딧 지급 후 사전에 정한 사용처에서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준비중이며, 기존 고지서·영수증 증빙

방식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*보다 신청 및 이용이 수월하여 연내 빠르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 ('24년 한시) 연매출 1억400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최대 25만원 지원

- 금번 사업을 통해서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5-7310)
		담당자	사무관	남동현 (044-215-7316)
	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	책임자	과 장	안원호 (044-204-7821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선 (044-203-7853)

